

# 본 사람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란다

수리아의 검-II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8)

마야가 그런 아들의 버릇없는 말투에 당황하자, 아베레는 신경 쓰지 말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호호. 그리고 보니 너하고도 요즘 통 만나지 못했구나. 아! 하지만 그래도 며칠 전엔 이제 곧 네 생일이라고 이야기 하던걸. 어쩌면 할아버지와 함께 멋진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지도 모르지.”

생일이라는 말이 무니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 마야도 마찬가지로였다.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던 아베레는 자신이 괜한 말을 했다는 걸 눈치 채고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마야는 애써 웃어보였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지고 말았다.

한편, 오두막에선 난다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수레바퀴를 보며 끔끙거리고 있었다. 나무 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긴 했지만 도무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또 할아버지 쪽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쓰는 데 집중해 있어서 손자를 쳐다볼 틈조차 없는 거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난다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수레바퀴에 온 정신을 집중해보려 애썼다. 그러나 역시 실패였다. 난다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보려고 애쓸수록 보이지 않는 거란다.”

몇 시간 만에 들어보는 할아버지 목소리인가. 난다는 기쁜 마음에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뭔가를 쓰고 있던 종이를 향해 있었다.

“봐야 하나 보려고 애 쓰는 거죠.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보라고만 하셨잖아요!”

난다가 불멘소리를 했다. 며칠 전 무니와 만나고 돌아온 난다가 왜 자신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대답은 하지 않고 대뜸 그 수레바퀴를 건네줬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말을 들어다봤을 때처럼, 이것도 한번 보려무나.”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는 법 아닌가.

“보이지도 않는 걸 자꾸 보라고 하시면서, 보려고 애쓰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 저더러 어쩌라고요. 답답해요. 차라리 재미없더라도 약초학 공부를 하거나 ‘침묵의 책’ 같은 걸 읽는 게 낫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애쓰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것이지.”

난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점점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정말 ‘오야!’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실 그런 난다의 모습을 보는 유리 영감의 마음이라고 편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에게 분명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누구인가 가르쳤다. 하지만 아이에게 지혜로 승화시킬 충분한



삽화 · 김홍연

한 지식을 전해주지는 못했다. 게다가 ‘왜 무니에게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냐’는 난다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니는 분명 예언의 그 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계의 지식이란 것들이 그 아이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의 생각은 ‘아니다’였다. 하지만 이게 올바른 선택이 될 지는 유리 영감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예언이라든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 지도 말이다. 그는 운명이나 예

언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담혀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 그것이 예언의 아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무니가 운명이라는 달린 문을 열 수 있게 만들 마지막 열쇠가 바로 난다라는 사실이었다.

난다는 이미 수레바퀴를 ‘보는’ 건 포기하고 단 생각에 빠져드는 중이었다. 그럼 밤, 뒷산에서 했던 놀라운 경험은 할아버지가 비밀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을 이야기였다. 등불도 없이 거의 완벽한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가 ‘사무르 사무타.’라고 외치는 순간 두 사람 앞으로 달이 떠올랐던 것이다. 하늘에서 사라진 달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그 거대한 달이 자신의 한 눈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아마도 무엇보다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은 그 안에서 자신이 본 광경이리라. 맨 처음엔 시끄러운 소리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엔 기쁨,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눈앞을 빠르게 스쳐지나갔다. 그렇게 모든 것이 스쳐지나간 후, 다시 눈앞엔 커다란 달, 아니 달 ‘들’이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분명 달은 하나였으나, 무수한 수의 달들이 또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광경이었다. 달들은 서로 겹쳐지는 듯 보였지만 겹쳐진 것이 아니었고, 서로의 모습을 비추는 듯 보였으나 마주 보는 거울 속의 사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크기와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난다가 어떤 하나의 달에 집중하지 않고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그 무수한 이야기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에는 이헤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냥 그 광경들이 그대로 흡수되는 느낌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난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다시 생각이 있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는 자신을 안아준 것도 바로 그때였다. 그는 난다의 눈물을 닦아주며 “너는 꿈을 본 거란다. 잠들지 않아야 볼 수 있는 꿈”이라고 부드럽게 위로하듯 말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한참 난다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토록 슬퍼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꿈...’ 난다는 속으로 그 단어를 발음해 보았다. 어쩐지 가슴이 다시 아파오는 거 같았다.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유리 영감이 멍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난다의 머리를 톡하고 때리며 말했다. 전혀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래, 지금 여긴 꿈이 아니지.” 난다는 생각했다.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낮이 빠져 있던 게냐?”  
“그 날이요, 할아버지. 그날 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본 광경 중에 어떤 끝이 있었거든요. 무엇이 끝인지, 어디의 끝인지 알 수 없지만 무척 슬펐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끝을 막고 싶어요. 그건 정말 꿈일까요?”

유리 영감은 대꾸하지 않았다. 난다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답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듯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제가 본 건 뭡가요? 분명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유리 영감은 길게 숨을 들이켜고 난다를 바라봤다.

“글쎄. 그런 나도 모르겠구나. 그걸 본 건 내가 아니라 너이지 않나?”

난다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울상을 지었다. 유리 영감은 그런 손자를 보며 말을 이었다. “본 사람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란다.”

독백과도 같은 어조였다. 잠시 후, 유리 영감은 난다 자신이 원했던 대로 ‘침묵의 책’을 읽어보라고 시키는 오두막을 나왔다. ‘침묵의 책’은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지만, 일단 펼치면 책을 읽는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신비의 책이었다. 하늘은 이미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또 이렇게 하루해가 지나니, 새삼 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지 느껴졌다. 유리 영감은 손자가 읽다가 포기한 수레바퀴를 꺼내어 가만히 바라봤다. 은색 바퀴의 중심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더니, 나무바퀴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바퀴를 다시 손에 쥐었다. 붉게 물들어있던 하늘도 어느새 새 보라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유리 영감은 잠시 그렇게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니는 산딸기 과즙을 맛있게 마시고 있었다. 감회가 새로웠다. 작년 자신의 생일에도 바로 여기 난다네 집에서 이걸 마셨었지. 그 후로 누프르산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유리 영감이 자신과 난다에게 누프르산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

“아버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하필이면 오늘 거기로 심부름을 보내시다니 말이야. 그나저나 난다는 또 녹장을 부리는구나. 애, 난다야!”

아베레는 무니의 빈 잔에 다시 과즙을 부어주며 아이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그제야 난다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다.

“아니, 도대체 그 가방은 뭐니? 점심은 따로 싸왔잖아?”

그 모습을 본 아베레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단숨에 잔을 비운 무니 역시 입술 끝에 묻은 달콤한 액체를 혀로 핥으며 친구의 가방을 쳐다봤다.

“그냥, 할아버지가 심부름하면서 보라고 주신 책이랑, 혹시나 작년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목도리랑 장갑 챙겼어요. 산은 출렁이요.”

그리고 무니를 향해 말했다. “네 것도 하나 챙겼잖아.”

“아무리 추워도 털목도리를 할 만큼은 아니야. 이상하게 왜 그래?”

무니가 대답했다.

“아. 몰라. 그냥, 내가 들고 간다는데 왜 다들 참견이야?”

“또, 또! 말버릇하고는!”

엄마가 주의를 주자 난다는 혀를 속 내밀더니 말꼬리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마구간에 가 거서.”

## 3000배 용맹정진

“한달에 딱 한번 건강 복받은 3000배 100%동참 후회없기”

### 청견스님 700만 배 철수행의 지혜로운 에너지!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로 고통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건강을 회복하고, 소원을 성취할 기쁨 평안~ 감동의 기적같은 엄청난 체험이 있습니다.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몸을 흘려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애매히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공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11년 4월 30일(토) 저녁 9시~2011년 5월 1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흰색법복, 조개,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양식을 담은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 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2개, 위생비닐장갑1, 목수건

● 장 소 :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02)456-0035  
※ 전철 : 2호선 독성역 8번출구 직진 30m 좌회전 직진 150m 하나은행 5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 순일 금강경 교실

부처님께서 금강경, 반야심경 및 초기불교경전을 통해 전해 주셨던 심오한 가르침의 정수를 한역본과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비교 분석하여 쉽고 상세하게 풀어 펼쳐주시는 순일 스님의 깨달음 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포교당 4월 23일 오전 11시 개강**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12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더샵 스타파크 A-309

**부산순일선원 5월 6일 저녁 8시 개강**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8~9시 30분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7-2 2층  
문의 070-4129-4127

\*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수강료 5만원(산스크리트어 교재비포함)을 농협:351-0184-5321-83(순일선원)으로 입금하신 후 070-7779-77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모집]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oonil.org]를 참조하세요!’

사단법인 soonil.org  
**순일선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침리 166-3 T. 070-7779-7711

## 사찰(금)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사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웅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구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사관 외벽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전도제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종료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구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4월 27일(수) 오후 2시  
5월 4일(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는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 백암역리원

02)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5번출구 동작구청 옆